

## 태왕 노기원 피소사건 **대구경찰청** 반부패수사대서 조사

대구경찰청, S개발 대표 소유 밝히는데 수사집중

동흥건설 고흥무 대표가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본지 2024년 5월 27일자 1면 참조〉**

애초 사건은 고 대표가 지난 6월 수성경찰서에 접수했지만 수성경찰서는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넘겼다.

지난달 대구경찰청은 수성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고 대표는 태왕 노 대표이사와 C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관한법을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혐의로 각각 고소했는데 이 사건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어온 것이다.

사건을 맡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능·고도화하는 악성 사기와 중요 경제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부서다.

주로 금융사기, 자금세탁, 부정거래, 포괄적 경제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 부패된 경제 활동을 탐지하고 단속한다.

부패나 범죄 행위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근절하고 경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고소사건을 착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C씨를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고 대표가 고소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S개발이 본인 소유 회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대표는 C씨가 실제 바지사장이라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최대 쟁점은 S개발이 누구 소유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고 대표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C씨와의 대질 조사를 요구했지만 C씨는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경찰은 조만간 태왕 노기원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넘어가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용 기자



한낮 타는 더위 너무나 덥소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낮에는 가마솥 더위이고 밤에는 열대야다. 한밤에도 30도다. 한우 사육 농가 천장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가 더위에 지친 소들을 달래고 있다.

### 24시간 용광로 더위... 사람들 "죽도록 덥다"

밤 최저 27.3도 폭폭찼다 대구 15일째 열대야 기록 맹열 더위 온열환자 급증

24시간 폭염이다.

낮에는 가마솥 더위이고 밤에는 열대야다.

한밤에도 30도다.

맹열 더위로 온열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도로가 이글대고 숨이 턱턱 막히면서 대구 경북 곳곳에 살수차가 동원됐다.

사람들은 "죽도록 덥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과 강원을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특보가 내려졌다.

썸뚱 더위는 날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 대구 15일째 열대야

밤사이 덥고 습한 바람이 유입되며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대구·경북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4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13개 시군에서 열대야가 관측됐다.

주요지점 밤 최저기온은 대구 27.3도, 경산 27도, 칠곡 26.6도, 고령 26.5도, 울릉도 26.4도, 경주 26.3도, 구미 26.1도, 성주 26.1도, 청도 25.7도, 영천 25.5도, 상주 25.3도, 김천·포항 25.2도, 안동 25.1도, 울진 25도 등이다.

대구시는 7월 20일 이후 15일째, 포항은 7월 24일 이후 11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폭염경보가, 울릉

도·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 발효된다.

대구·경북 전 지역 폭염경보는 지난 26일 이후로 10일째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폭염 온열환자 급증

폭염으로 경북 도내에서 잇따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 현황을 보면 두 달간 경북에서 7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에는 상주에 사는 60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져 경북 지역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분류됐다.

포항에서는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포항남·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서 72세 남성이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7월 29일에는 울릉도에서 70세 남성, 7월 30일 포항 대잠동에서 50세 남성, 7월 31일 포항 흥해읍에서 80세 남성이 열탈진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1일에는 포항 두호동에서 62세 남성, 포항 신광면에서 72세 남성, 8월 2일에는 79세 남성이 열탈진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올라가는 낮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경북소방본부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경보 발효에 따른 예방 안전교육 △예찰활동 및 홍보 방송 실시 △열음팩(조끼),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음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 비치 △여름철 건설공사장 현장 및 농어촌 경로당 지도방문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열대야일수 역대 6위 기록

이제 8월에 막 접어들었는데 올해 여름 열대야일수가 10일을 넘어서며 역대 6위를 기록했다.

가장 더웠던 해로 꼽히는 1994년이나 2018년과의 차이가 일주일도 채 나지 않는다.

폭염은 적어도 이달 초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열대야일수가 두 해에 버금가거나 두 해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간밤까지 열대야일수는 10.6일로 집계됐다.

열대야일수는 밤사이(오후 6시 1분~다음 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기온이 밤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며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다고 본다.

197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열대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4년 16.8일이고, 2018년이 16.6일로 뒤를 이었다. 두 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우리나라를 덮쳤던 해다.

이외 올해보다 열대야일수가 많았던 해는 2013년 14.0일, 2022년 13.2일, 2010년 11.5일이다.

이번 여름 열대야는 지난달 중순순계 장맛비가 차츰 잦아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여은 기자

### 경북 연안침식...작년 축구장 5.5개 면적 사라져

도내 전체 침식 우려·심각 지역 58.1%로 2022년대비 2.3% 늘어

경북 동해안의 연안 침식 속도가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에만 축구장 5.5배의 연안 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10년부터 침식이 우려되는 연안을 선정한 침식 이력, 침식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4일 경북도가 도내 동해 연안 43곳에 대해 최근 진행한 '2023년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침식 우려·심각 지역(C, D등급)은 58.1%로 2022년대비 2.3% 늘었다.

늘어난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울진군, 영덕군의 해변 가운데 우려나 심각 단계 침식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주시는 심각한 침식이 줄었고 포항시, 울릉군은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도내 연안 43곳에서 3만 9419㎡(축구장 면적 약 5.5배)의 면적과, 5만 4277㎡(25t 덤프트럭 3479대)의 체적이 줄었다.

용역 수행업체는 "태풍 카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덕군, 울진군의 침식이 다소 높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침식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안 정비사업(수중방파제, 이안제 등)의 효과로 연안 침식이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동해안 연안침식 실태조사하는 모습

올해 도내 연안정비 사업은 15곳에 242억원이 투입돼 진행된다.

국가 직접 시행 사업으로 155억 원이 투입돼 △포항 영일대, 모포리, 도구, △경주 전동 △영덕 백석-고래불 △울진 금음, 봉평2리 △울릉 남양1리, 태하1리 등 9곳에서 진행된다.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는 87억원이 투입돼 △포항 화진, 구룡포 △경주 나정, 하서 △영덕 금진-하저 △울릉 학포 등 6곳에서 진행된다.

도는 연안 정비사업 추진 결과 2015년 80.5%였던 침식 우심 지역 비율이 지난해에는 58.1%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경근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식이 심각한 지역부터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침식의 근본 원인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친환경적인 연안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정창명 기자



#### 단체장 일정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인 부이사관에게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문위원 파견근무 임용장을 수여했다. 박 의장은 "의회 관련 중앙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데 전종인 입법자문위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이 쏟아지는 밤! 밤이 아름다운 영천!**

보현산댐 짙와이어 & 출렁다리  
탑승거리 1,411m, 최고 100km/h의 속도 체험

영천 보현산댐 짙와이어, 보현산댐 출렁다리



### 달성군 미래세대봉사단, 생수 900개 지원

달성군 미래세대봉사단은 현풍읍·유가읍·구지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생수(500ml) 총 900개를 지원했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은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장소 관리, 등하교 시간 스쿨존 교통지원, 전기차 충전소 관리와 같은 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지원받은 생수는 최근 연이은 불볕더위와 폭염에 야외활동으로 고생하시는 관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양래 현풍읍장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주신 미래세대봉사단에 게 깊은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 대구 공무원 임용시험 첫 거주지 제한 폐지...

경쟁률 102.4대 1 기록 '열린채용' 성공 원서접수 결과, 타지역 응시자 28.5% 지원

대구시가 실시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서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1.7배 높은 102.4대 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실시한 임용시험에는 16개 광역시·도(서울 제외) 중 최초로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지난달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거주지 요건 폐지를 공고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11일 동안 접수했다.

원서접수 결과 총 13명 선발에 총 1331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지역의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28.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의 평균 경쟁률인 58.5대 1보다 1.7배 상승한 수치로, 거주지 제한 폐지로 인해 전국 응시생들이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직렬(직류)별로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은 6명 선발에 1,129명이 지원해 188대 1(2023년

111.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중 지역 응시생은 305명(27%)이다.

보건(공중보건)연구사는 4명 선발에 118명이 지원해 경쟁률 29.5대 1(2023년 31.3:1), 환경(환경)연구사는 3명 선발에 84명이 지원해 28대 1(2023년 10.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체 직렬 중 지난해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2.6배)을 나타냈다.

한편, 제3회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토)에 시행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등 상세 사항은 10월 중 대구시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지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등 열린 채용을 통해, 전국의 우수 인력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장은 "대구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열린 대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 중구청, K-한방의료 우수성 알려...

### 日 U12 도쿄 선발팀 대상 중구 의료관광 팸투어 실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박차

중구청은 지난 1일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U12 도쿄 선발팀 26명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투어는 도쿄 축구협회의 지원을 받아 방학 기간 중 한국 축구팀(중학교팀)과 합동 트레이닝 및 친선경기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선수단을 대상으로 중구청과 일본 국제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인 JAPAN SPORTS PROMOTION과 협력을 통해 중구의 한방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했다.

투어 일정에는 △리뷰한방병원 △계산예가 △한방의료체험타운 △약령시한의약박물관

등이 포함되었으며 대구 중구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366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구약령시 한방특구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일본 U12 도쿄 선발팀 선수들과 코칭스텝은 리뷰한방병원에 방문해 병원시설 견학과 체질 검사, 척추 진단, 성장 검사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해 한-양방 협진 시스템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 계산예가에 방문해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이상화·서상돈 고택, 제일교회 역사관,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등 골목투어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전통 한방문화와 근대 역사

의 맛을 알렸다. 이번에 대구를 방문한 일본 U12 도쿄 선발단의 코치는 "한국(대구) 방문을 통해 한방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으며, 한-양방 협진 치료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 선수들의 재활 치료에 한방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 중 일본인 의료관광객이 전년 대비 762.8% 증가해, 전체 의료관광객의 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많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동성로 관광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동구 아양기차길, New K-2 홍보관으로 재탄생

동구청은 기존에 카페와 보행로로 활용되던 아양기차길을 New K-2 홍보관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이번 New K-2 홍보관 조성 사업은 구비를 포함해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후적지 개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끌고, 주민들에게 글로벌 수변도시로 변모할 동구의 미래를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홍보관은 안내데스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정보공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실감영상관, New K-2 정보공간(미디어테이블, 디오라마 프로젝트 맵핑 쇼) 등의 공간으로 마련됐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New K-2 홍보관으로 거듭난 아양기차길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New K-2 홍보관은 오는 12월 개관식을 갖고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동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김선조 대구 행정부시장 폭염 현장 방문...안전사고 예방

### 폭염 대비 현장 안전관리 상황 점검 및 불편사항 청취 시 농기센터...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 기울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일 남구 대명동 옛 캠프위거 반환부지 내의 대구도서관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보호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공사장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연일 폭염경보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장 현장근로자에 대한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대구도서관 마감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옥외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냉방설비(얼음 제조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설치 여부, 보냉

장구(얼음조끼) 및 근로자쉼터 등의 휴게공간 구비 여부 등을 세심하게 살펴봤다.

한편 대구시는 폭염 시 행동요령 라디오 홍보 캠페인 실시, 폭염취약계층 관리, 무더위쉼터, 도로 살수차 및 클린도시스템 운영 등 폭염대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지속 추진한다.

한편 대구시농업기술센터도 여름철 폭염대비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및 발생을 줄이고자 한국생활개선대구광역시연합회 및 농업인안전리더를 통해 여름철 폭염대비 현장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폭염 인명피해 예방 집중대응기간(7.29.~8.15.)을 운영하고 농업인의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현장 기술지원 등 사전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고령 농업인 등 농작업 안전관리 철저를 위해 낮 시간 농작업 자제, 나홀로 작업 금지, 물 자주 마시기 등 폭염 시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을 농업 현장 방문 또는 전화로 전파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 군위군-효성병원, 저출산 극복 협약 체결

###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

군위군과 효성병원은 저출산 극복 협약 체결 업무 협약식이 지난 2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군위군의 저출산 극복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진연 군위군수와 박경동 효성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다짐을 공유했다.

군위군수는 "이번 협약이 우리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성병원과의 협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의 주요 목적은 군위군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의 건



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첫째, 군위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료 우대혜택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건강 강화를 꾀하여, 산부인과 및 난임 관련 정보와 지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지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협약을 통해 군위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의 각 조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군위군과 효성병원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군위군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군위군과 효성병원이 함께하는 이번 협력의 결과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본다. 앞으로도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군위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성 기자

## 수성구 드림스타트, 아르떼 수성랜드와 어린이 스케이트 강습 프로그램 운영

수성구 드림스타트는 아르떼 수성랜드와 함께 오는 12월 말까지 스케이트를 강습하는 '드림 꿈나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체육활동을 통해 아동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재능을 가진 어린이에게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8명이 수성랜드 아이스링크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강습에 참여한다.

스케이트를 처음 접하는 아동이 대부분이지만 전문 강사들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도 덕분에 빠르게 기초를 익히고 있다.

수성구는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아동들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 누리집: www.dgy.co.kr |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 대표전화: 053-253-0000 |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 경영지원국: 053-267-5000 | 광고국: 053-267-0800 | 문체부: 053-253-0065

부시경: 053-254-0500 | 기획조정실: 053-267-0600 | 사회부: 053-253-0060 |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 임원실: 053-267-0700 | 정경부: 053-253-0061 |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0회 연속 1등급' 획득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번 1등급의 평가로

2006년부터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0회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88.13점)보다 높은 종합점수 99.99를 받아 동산병원 급성기 뇌졸중 치

료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평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총 249개 의료기관과 중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서 경북 최고 위험

## 올해 야생 멧돼지 검출 건수 539건 전국 82.7%

경북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야생 멧돼지 ASF 검출이 2022년 2월 상주에서 나온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백두대간 중심으로 ASF 감염 멧돼지의 지속적인 서남진 추세에 이어지면서 양돈농가에 ASF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야생 멧돼지 ASF 검출 건수는 전국적으로는 2022년 881건, 2023년 732건, 올해 7월 652건으

로 점차 줄고 있다. 경북에서는 2022년 101건, 2023년 370건, 올해 7월 말 현재 539건으로 폭증세를 보이며 전국 검출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멧돼지 ASF 검출지 기준 방역대(10km) 내에서 20회 이상 검출된 지역에 있는 고위험 양돈농가 수는 지난해 19호에서 올해는 43호로 크게 늘었다. 시군별 고위험 양돈농가는 지난해 상주 8곳, 문경 6곳, 영덕 3곳, 청송과 예천 각 1곳이었다. 올해는 포항과 안동 각 8곳, 영천 7곳, 상주와 영덕 각 6곳, 봉화 3곳, 의성과 청송 각 2곳, 예천 1곳이다.

올해 경북에서는 영덕(1월 15일), 영천(6월 15일), 안동(7월 2일)의 양돈농가에서의 잇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양돈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실제 양돈농가에서의 ASF 발생이 잦아지고 고위험 농가 수가 크게 늘어나자 경북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가방역 의식 대전환에 나선다. 단계로 시군담당자 교육을 추진해 방역 현안과 방역관리 기준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4일 71명에 이어 이달 중으로 또 교육한다. 2단계로 양돈협회 등 도협의회 및 시군지부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도협의회에 대해선 매월 회의 때 도 관계자가 방문해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방역 인식 개선 교육을 하기로 했다. 시군지부에 대해선 월별 순회 교육으로 농가별 방역 인지도 개선에 나선다. 3단계로 농가별 1대1 맞춤형 교육을 해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두번째 전략으로 멧돼지 ASF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 대한 중점 관리를 추진한다. 지난 달에 이어 이달에도 ASF 감염 야생 멧돼지 검출 빈도에 따라 소독 및 8대 방역시설 설치 여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을 하고 미흡한 농가는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내년 보

조사업 미지원 등의 불이익을 준다. 방역 기반도 강화해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속 차량으로 농가별 소독 전략을 지도하고 거점 소독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의 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멧돼지 기피제 살포도 늘여기로 했다. 멧돼지 포획 등 개체수 조절에도 적극 나선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위험하다. 이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 더 계속될 것"이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 공무원과 농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 홍준표, 21대 대선 향해 힘찬 날갯짓...

### 나라와 국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하게 준비 21대 대선 출마 뜻 밝혀...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2027년 21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3일 홍 시장이 만든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실망, 홍 시장의 정치 열정이 식지 않았나 걱정된다"며 "21대 대선에 제발 나와달라,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차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홍 시장에 주문했다. 홍 시장은 "2027년이면 대선 후보로 거론된 지 10년 되는 해다"라며 2017년 19대 대선 후보

로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맞선 뒤부터 지금까지 차기 주장 중 한 명으로 꼽혀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하게 준비해 보겠다"라는 말로 자신의 눈높이를 21대 대선에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향해 '정치 초짜' 에라는 등 험한 말까지 동원하면서 '뽀아선 안 된다'고 외쳤다. 정치권에선 홍 시장이 21대 대선의 강력한 경쟁자로 한 대표가 올라서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홍 시장은 "보수진영을 도둑시킨 인물이기 때문이다"며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위가 아니라 보수진영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민주 경북도당, 행정통합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도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경북도에 건의했다. 4일 경북도와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전날 이철우 경북지사와 면담하며 현재 논란이 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밀어붙이기 일방적으로 추진될까 봐 사·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도민 여론 수렴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을 경북도에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인구 감소는 대구가 더 심각한 만큼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대구·경북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라며 "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년도 국회 확보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조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도교육청 "신규 늘봄학교 288곳 운영 문제없어"

2학기 도내 모든 초등학교 특수학교 늘봄학을 운영... 경북교육청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신규 운영 예정인 도내 초등학교 288곳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늘봄선도학교로 초등학교 180곳이 운영 중이며,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교육청은 지난 달 12일부터 31일까지 2학기 늘봄학교 신규 운영 예정인 28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했다. 점검에는 교육청 현장지원단,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 현장지원단,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점검반이 나서 모든 학

교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점검반은 안정적인 인력과 공간 마련, 예산 확보 현황 등을 살피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들었다. 점검 결과 288곳 모두 늘봄 수요 조사를 마쳤으며 감사 확보, 공간 마련, 프로그램 매칭 등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는 이달 중 2차 현장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임중식 교육감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안정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처럼 늘봄학교가 학교와 지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 4~5개월 연속 2%대

## 대구 7월 소비자물가 2.4% ↑ ... 경북 7월 소비자물가 2.5% ↑ ...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이 사실은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확인됐다.

대구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 ... 경북 7월 소비자물가 2.5% ↑ ...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이 사실은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확인됐다. 대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2(2020=100)로 전년 대비 0.1% 상승했다. 1년 전보다는 2.4%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올해 들어 대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3%)을 제외하고 2%대에 머물고 있다. 3월 2.8%, 4월과 5월 2.5%, 6월 2.3% 등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116.67로 전년 동월(113.57) 대비 2.7% 상승했다.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서비스 등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으로 구성된 식품은 3.1%, 식품 이외는 2.5% 각각 상승했다. 생산·해산물, 채소, 과일 등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3.84로 전년동월 대비 6.8% 상승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는 2.6% 하락했고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18.9%, 신선채소는 0.5% 각각 올랐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인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에 0.33%포인트(p) 기여했다. 주요 등락 품목은 배 가격이 지난해보다 113.5% 상승했고 사과(35.9%), 포도(14.5%) 등도 올랐다. 바나나(27.3%), 참외(23%), 국산쇠고기(4.7%) 등의 가격은 하락했다. 전월인 6월과 비교하면 상추(65%), 오이(38.6%), 배추(34%) 등이 올랐다. 참외(28.6%), 복숭아(11.6%), 사과(6.2%) 등

0.82%p 기여했다. 도시철도료(20%), 시내버스료(17.8%) 등도 올라 공공서비스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며 서울, 부산, 대구 등 40개 지역에서 조사하고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품목은 상품 및 서비스 458개 품목이며 품목별 가중치는 가계 동향 조사 월평균 소비자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1000분비로 산출한다.

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대구·경북 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4.76(2020=100)으로 전년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부터는 2%대에 머무르고 있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3개 품목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116.22로 전년 동월(113.11) 대비 2.7% 올랐다.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서비스 등 식품은 2.9%, 식품 이외에는 2.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

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2.66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는 3.2%, 신선채소는 2.5% 각각 하락했고 신선과실은 18.8%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3.6%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에 0.31%포인트(p) 기여했다. 주요 등락 품목은 배 가격이 지난해보다 148.6% 상승했고 사과(38.1%), 돼지고기(2.9%) 등도 올랐다. 상추(24.2%), 국산 쇠고기(2.1%) 등의 가격은 내렸다. 전월인 6월과 비교하면 상추(63.8%), 포도(19.4%), 돼지고기(3.3%) 등은 올랐고 복숭아(26.1%), 국산 쇠고기(2.5%) 등은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전년 동월 대비 2.8% 올라 전체 물가 상승에 1.05%p 기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경우(10.9%), 휘발유(8.3%), 수입승용차(6.5%) 등이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도시가스가 0.4% 올랐고 전기는 0.4%, 상수도료는 0.3% 내렸다. 가전제품수리비(17.9%), 보험서비스료(15.1%) 등이 오르며 개인 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고 전체 물가 상승에는 1.01%p 기여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며 서울, 부산, 대구 등 40개 지역에서 조사하고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조사 품목은 경북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 456개 품목이다. 품목별 가중치는 가계 동향 조사 월평균 소비자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1000분비로 산출한다. 송명주 기자



###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 피서지 현장 확인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이 관내 하절기 피서지 현장에 발품을 판다. 현장확인용 송정자연휴양림 내 피서지 새마을작은도서관, 칠곡보야외물놀이장과 북삼읍

금오동천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내의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는 칠곡군 대표 관광지를 대상으로 했다. 관광객의 안전에 중점을 두

었다. 이상승 의장은 “금년도 칠곡군 관광지가 잘 운영돼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칠곡이 되기 바라며, 또한 휴가철을 맞아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전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 신동해안 시대 여는 전진기지 포항... 거점 도시 도약!

## 지역 균형발전과 신산업 강화 정부 특화단지·특구 지정 성과

포항시가 민선 7-8기에 걸쳐 지역 균형발전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각종 특화단지와 특구 지정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신동해안 시대를 여는 거점 도시로 힘찬 도약을 계속하고 있다.

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R&D인프라와 천혜 자연경관 등 지역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민선 7기 당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영일만관광특구 등 '3대 국가전략특구'에 지정, 신성장엔진 확보는 물론 창업과 기업유치, 관광 활성화 등 산업구조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민선 8기를 맞아 전국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2개 분야(이차전지·바이오)에 특화단지로 선정되며 이어 정부의 지방시대 양대 특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비롯해 기업혁신파크까지 품으면서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 등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와 산단 활성화 등 빼어난 성과를 내며 전국 유일 4년 연속 우수 특구에 선정되는 등 포항이 주도하는 '배터리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단 및 R&D 핵심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에도 최근 지정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법인세 감면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포항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다각적인 맞춤형 인재 양성 강화까지 기대되는 등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글로벌 경쟁력과 주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포항시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착실히 육성해 온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서도 최근 '바이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서 각종 인·허가의 신속처리, 기술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개 분야에 선정된 만큼, 향후 '국가첨단전략산업진흥원(가칭)'을 유치해 전담 국책기관으로서 특화단지의 종합적인 운영 및 육성에도 앞장선다.

올 3월에는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인 기업혁신파크에도 지정돼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투자하는 등 기업 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형태이다.

시는 향후에도 글로벌 혁신특구, 수소특화단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심융합특구 등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에 지정될 수도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한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이 균형 발전의 롤모델 도시, 잘사는 지방 도시로서 희망을 제시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창면 기자



## 2024 예천곤충축제 8월15일 막을라

### 어린이 맞춤형 곤충 특화 공연 체험 프로그램 풍성

2024 예천곤충축제가 오는 15-18일까지 예천 곤충생태원에서 열린다.

예천곤충축제는 '곤충의 도시' 예천의 특색을 살린 축제로, '어름 + 어린이 + 곤충 = 와글와글!!'이라는 테마로 어린이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곤충특화 프로그램을 풍성히 준비했다.

15일에는 자연·생물 콘텐츠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튜브 '에그박사'를 초청한다.

17일에는 희귀동물·곤충 관련 유명 유튜브 '정브르'를 초청, 곤충 정원 야외무대에서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요일별로 코

미디쇼, 마술쇼, 뮤지컬 갈라쇼, 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꿀벌존 특별버스에서는 꿀뜨기 체험을 비롯, 누에 등 다양한 곤충 체험이 준비돼 있다.

호박벌존에서는 곤충전문가이자 만화가인 '갈로야'가 생태원 곳곳을 누비며 곤충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곤충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린이날 행사 때 호응이 매우 높았던 코니페디 탐험대는 확장된 세계관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야외생태원 물방개존에는 여름 보내기 물총놀이와 에어바운스가 준비돼 있다.

축제를 앞두고 시설 보강도 한창이다.

지난해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모노레일이 재운행을 시작해 축제 기간 생태원을 찾는 관람

객들에게 편의성과 즐거움을 더한다.

나비터널, 체험 온실에서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생태체험관 3층에서는 곤충로봇 악단의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이호중 곤충연구소장은 “생태원의 특색을 살려 어린이 관람객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짜임새 있게 준비했다”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을 한천체육공원 일대에서는 하현우, 장민호 등 인기가수의 공연과 벽스위터사이벨, 벽스물놀이장, 워터플레이존 등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벽스위터피카 행사와 야시장도 함께 열린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천곤충축제 공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송명주 기자

## 구미시, 재건정성 제고 박차...예산규모 확대

### 지방채 규모 대폭 감소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구미시는 향후 시재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관리, 재정 건정성을 강화한다.

지난 민선 7기 동안 구미시의 지방채 규모는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민선 8기 이후 국·도비사업 유치 등을 통해 예산 규모를 최대한 확보, 신규 지방채 발행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을 추진, 지방채 규모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

2021년 말(민선 7기) 기준으로 지방 '채무'(지방채)는 2065억 원이었다.

민선 8기 들어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입여금 등을 활용하여 2022년에는 305억 원, 2024년에는 222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지방 '채무'(지방채)는

1594억 원(22.8% 감소)으로 감소하여 재정건정성이 호전됐다.

결산상 '부채'는 채무를 비롯한 미래에 자원(자금) 유출이 예측되는 현재의 채무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를 포함한다.

2023 회계연도 결산상 '부채'는 계류중인 소송 사건 등 기타 비유동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확정부채의 성격이 강한 '채무'와는 다르다.

일부에서 결산상 인구 대비 집행률이 다소 감소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민선 8기 이후 국·도비 등의 증가로 예산 규모가 2년 만에 4960억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목적성 있는 사업이 연차적 계획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등 단년도 집행이 다소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예산이 사장되거나 미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매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미의 변화를 위해 국·도비사업 유치를 최선을 다한다.

향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 단년도 조기 집행률을 높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 불황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에 대응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적극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이자 부담이 높은 금융채는 조기에 상환하겠다”고 했다. 송명주 기자

### 2년간 경북서 꿀벌 개체수 50% 감소...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 분봉한 꿀벌 가족이 발견돼 주민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칠곡군은 최근 왜관 4리 공유정원에 있는 오

### 경산 '저출생 극복 TF' 상황 보고회

경산시가 경북도와 손잡고 TF팀을 구축,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시는 지난 2일 TF 추진단장인 윤희란 부시장 주재로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및 경상북도 관계자와 함께 저출생 극복 TF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완전돌봄 △안심주거 △행복출산·의료 △조직문화의 4개 반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 TF 전담부서별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도는 저출생에 따른 국가 위기상황 공유 및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희란 부시장은 “저출생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체계적·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 말했다.

## 도심으로 이사 나온 꿀벌 가족들...

색버들 나무에서 꿀벌 2천여 마리를 발견하고 양봉농가에 연락해 벌통으로 옮겼다.

김상근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양봉연구회장은 개체수 증가로 기존 여왕벌이 새로운 여왕벌에게 집을 양보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서 도심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경북에서 꿀벌의 개체수가 50% 감소했다. 꿀벌은 작물의 70% 이상을

번식하게 해주는 생태계의 거물이며 꿀벌이 없으면 4년 이내에 인류도 사라진다”라고 전했다.

그는 “바이러스, 진드기 등 꿀벌 개체수 감소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예코 칠곡과 같이 다양한 친환경 운동 등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조미경 기자

## 상주 복숭아 중동 두바이 첫 진출!

### 일반복숭아 프리미엄 복숭아 수출 확대...

상주 프리미엄 복숭아가 두바이로 진출했다. 상주 복숭아 수출이래 중동지역은 처음이다.

지난 1일 상주시 사벌국면에 위치한 굿마인드 영농조합법인 선과장에서 상주시 관계자 및 회원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수출길에 오른 상주 프리미엄 복숭아는 약 400kg이다.

누림 업체를 통해 수출했다.

굿마인드영농조합법인은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지정받아 수출 생산시설과 포장 디자인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복숭아와



프리미엄 복숭아 수출을 확대한다.

두바이는 200여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구매력도 대체로 높은 편이며 일반 복숭아뿐만 아니라 고가의 프리미엄 복숭아가 수출되기도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 안동시, 노후 불량 빈집 철거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 국비확보 빈집 철거사업 추진

안동시는 농촌지역 도심지 이주 및 인구 자연 감소 등으로 인한 방치된 빈집의 철거사업을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 현재 안동시의 빈집은 전체 786동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유자 사망 또는 관리자 부재로 방치된 빈집

으로 인해 주민 안전 위협, 위생·악취 발생,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범죄 등의 문제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며 인근 주민이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시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부 파손 등으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철거가 시급한 빈집에 대해 국비 3억 5500만 원을 확보해 직접 철거한다. 송명주 기자

경주시, 8~9월 '경주페이·먹깨비' 혜택 풍성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공을 기념하고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주페이는 8~9월 두 달간 캐시백 지급률

을 7~10%로 상향한다. 단, 월 40만원 사용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오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공매달엽 먹깨비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 개최 기념 3000원 할인쿠폰 행사를 한다. 할인쿠폰은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지급된다. 9월 6일부터 열리는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2024 LCK 서머 결승전'을 기념해 3000원 먹깨비 할인쿠폰 3000장도 발행한다.



렌즈 속 시간 여행, '100년 전의 경주 고적 사진전' 개최

오늘부터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1층 전시실서 개최

광복 79주년을 맞아 '렌즈 속 시간 여행, 100년 전의 경주 고적 사진전'이 열린다. 사진전은 5~24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 막 오른다. 개막식은 5일 오후 2시다.

사진전은 일제 강점기 조선고적조사 사업에서 사진 촬영을 담당했던 아쓰이 세이이치, 무라카미 텐신 등 일본인 연구자와 사진작가가 1909년부터 1920년까지 남긴 경주 유적 사진 100여 점과 기록자료를 전시한다. 모든 자료가 100년을 훌쩍 넘어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전시에서 경주 동양한 사진관의 다나카 가메쿠마가 1912년부터 1915년까지 촬영한 석굴암 해체복원 공사 전후 전경과 보고서, 도면 등을 담은 사진 37매가 일괄 공개되어 일제 강점기 석굴암 원형 모습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다.

1926년 경주박물관 주임(관장대리) 모로가 히데오가 일본왕실방문단에 대해 선물했던 신라 토기 실물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최근 일본에서 발견되어 극적으로, 국내로 반환됐다.

일제 강점기 신라 고분의 도굴과 불법 증거 협의를 증명할 실물 자료도 볼 수 있다.

1916년 무렵 일본인 모로가 히데오가 신라 최고의 공예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경주 사천왕사 녹유 신장상을 도굴한 정황을 전하는 편지와 유물 출토 지점을 표시한 도면도 실물 자료로, 최초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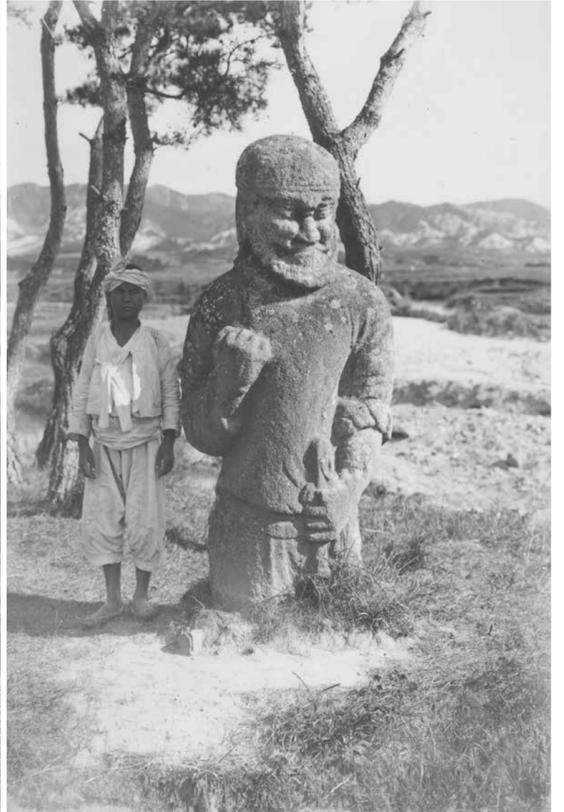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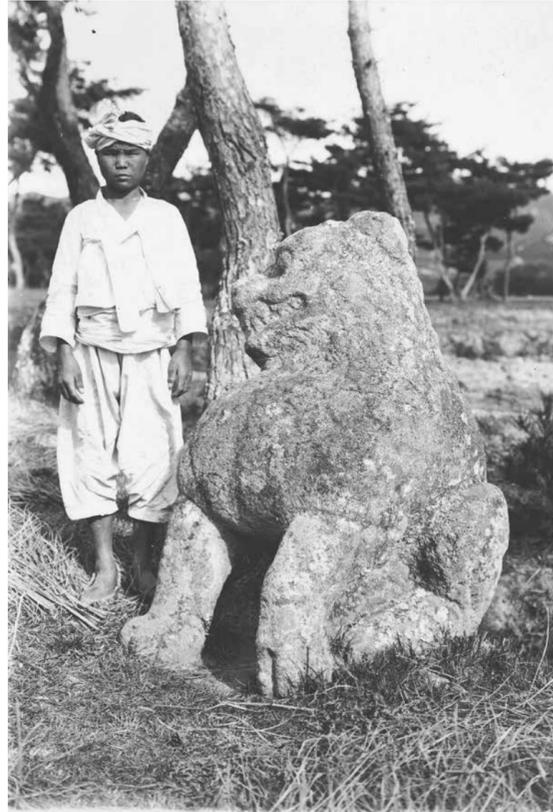
'조선고적조사'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당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와 기록을 목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있는 고적을 조사한 프로젝트다.

이 시기에 작성된 각종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들은 다양한 장르의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보다 빛나는 문화민주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1909년부터 1921년까지 이루어진 '조선고적조사'의 세부 과정과 유물 반출경위 등을 한국 고고학자가 분석 재정리한 '한국고고학자 새로 쓰는 조선고적조사보고' 시리즈를 발간해 일제 강점기 우리 문화유산 기록을 찾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사진전은 도가 지원하고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과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BK사업팀이 공동주최한다.



외동에 세 번째 건초생산 사업장 준공 앞뒀

제3 사업장 완공되면 연간 5000톤 건초생산 설비 갖춰

경주시가 세 번째 건초생산 사업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2억 8800만원 예산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외동읍 말밭리에 열풍 건초생산 사업장을 건립한다.

이달 안으로는 포장기 및 건조기를 각각 설치 완료한다. 열풍건초는 풀 사료를 3~5cm로 짧게 절단해 배합한 후 건조기 내 열풍을 이용해 수분함량을 20% 이하로 건조하는 시스템이다.

지역에서 한우 사육을 가장 많이 하는 외동 지역에 건초생산 사업장을 건립해 더욱 의미가 크다. 외동읍 사업장이 10월에 완공되면 천북면 1000톤, 서면 2000톤, 외동읍 2000톤 등 총 연간 5000톤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수입건초를 대체하기 위해 3곳(천북, 서면, 외동)의 건초생산 사업장을 비롯해 12곳의 자연건초 생산단지 기반이 완성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초 자립화가 가능한 지자체가 된다.

향후 경주시는 건초생산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천북사업장의 공급 대상지역으로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등 3곳을, 서면 사업장의 공급 대상지역을 건천읍, 서면, 산내면, 현곡면 등 4곳으로 묶는다.

외동읍,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불국동 등 6곳은 외동사업장 공급 대상지역으로 관리한다.

건초구입 신청 지역에 대한 혼선을 피하고 인건비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경영체 협의회가 모든 신청을 받아 사업장별로 작업 물량을 요청하게 된다.

구매자들은 해당 달 신청 후 다음 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건초를 수령하면 된다.

앞서 시는 건초보급 지급화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 2022년 천북 사업장(3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서면 사업장(2억8800만원), 올해는 외동 사업장이 선정됐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사회복지사가 폭염 쓰러진 홀몸 노인 살려

사회복지사 김동아씨 의식불명 노인 발견... 신속 대처 생명 구해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를 챙기는 지자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80대 어르신의 생명을 구했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안강읍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김동아(여·47) 씨는 지난 1일 자신이 돌보는 A(83) 어르신에게 보고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평소 안부 확인 연락을 잘 받던 어르신이 당일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김 씨는 어르신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하고 곧장 어르신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안에 들어섰을 때 어르신의 의식을 잃은 채 마당의 자에 쓰러져 있었다.

발견 당시 어르신의 체온은 40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19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어르신은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다.

김 씨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겨우 가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일상을 보살피는 경주시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한몫했다.

어르신을 살린 김 씨는 하나제가노인통합지원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로 올해로 경력 11년 차 베테랑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사 김동아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

을 했을 뿐"이라며 "작은 관심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며 정기적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지난 7월 21일 이후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안강읍에서 80대 A씨가 폭염으로 의식을 잃어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A large graphic advertisement for Daegu's population policy. It features the slogan '행복한 시민 사랑스러운 대구' (Happy citizens, loving Daegu) and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Overly happy city I want to live in). The graphic is divided into four quadrants: '도전하는 청년' (Challenging youth), '활기찬 노후' (Vibrant old age), '꿈을 키우는 아이' (Raising children), and '행복한 가정' (Happy family). At the bottom, it says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We will create a city where citizens are happy with population policy tailored to me.) The Daegu Metropolitan City logo is in the bottom right corner.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 영덕서 피서 즐기고 특산물 복숭아 품에 안자!

## 황금은어축제, 고향사랑 기부시 복숭아 3kg 혜택

피서철 영덕이 들썩인다. 축제가 열리고 고향사랑 기부도 줄을 잇는다. 영덕군 병곡면 출신의 ㈜대도일앤씨 박해천 대표가 지난 1일 영덕군을 방문해 김광열 영덕군수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널리 알리고 함께 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영덕군은 오는 2일부터 4일간 영덕읍 오십전 둔

지에서 열리는 황금은어축제 기간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참여자는 해당 부스를 통해 10만 원 이상을 현장에서 기부하고 담레품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으며, 기부가 확인되면 즉석에서 현장 기부자 1인당 지역 특산품인 영덕 복숭아 3kg(30개 한정)을 받게 된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존의 세액공제, 담레품 혜택과 함께 커피 쿠폰을 추가 증정하는 ‘1+1+1’ 행사를 이달 19일까지 진행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축제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황금은어축제도 즐기시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참여해서 다양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덕 황금은어와 복숭아는 임금님께 진상한 역사를 지닌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들이다. 황금은어는 특유의 수박향과 담백한 맛으로 진미로 꼽히며, 복숭아는 양치바른 사질토에서 충분한 일조량을 받아 당도와 육질이 뛰어나다.

■ 행복나눔 1004 모금 운동  
영덕복지재단은 이달 1일부터 세달 30일까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4 소액기부 집중모금 계몽운동을 한다. 소액기부 계몽운동은 1004명이 1만 원씩 자발적으로 모은 금액으로 지역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시작했다. 지난해 1기 계몽운동에서 확보한 모금액은 올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30명에게 치과 진료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

올해 2기 계몽운동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행복을 나누는 1004명의 천사들’(이하 천사기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 모금액 역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복지를 위한 긴밀한 민·관의 협력을 통해 더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액기부 1004명 기부 계몽운동은 신청서를 받아 간단한 인적정보를 작성해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완료되므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복지재단(734-5671~5675)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여은 기자



### 청송 피서지 쓰레기 관리

청송군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관광지, 유원지, 하천, 계곡, 공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집중관리에 나선다. 피서객들이 집중되는 8월부터 피서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민원 및 무단투기 신고 등에 대처하고자 피서지 분리배출실태점검을 한다.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지역 등 집중단속을 강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작년 대비 많은 피서객들이 휴가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방역과 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기억에 남는 청송 여행이 되도록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입암면, 수해복구 물품 기부

영양군 입암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는 지난 1일 입암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하리, 대천리 주민을 위해 400만 원 상당의 이불 및 생필품을 전달, 수해로 인한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입암면 건강위원회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7월 25일 일일카페 활동 수익금 및 건강위원회 기금을 더해 이불, 세제 등 기본 생필품을 준비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입암면 건강위원회 최해선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나눔으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서 이 자릴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독도아카데미 교육 마무리

독도박물관은 독도아카데미 교육이 2024년 3월부터 진행된 상반기 교육을 7월 31일 마무리했다. 상반기 총 13기수, 교육생 1,368명이 참여, 상반기 독도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독도박물관은 독도아카데미 입교식 및 독도특강 교육, 독도 탐방 그리고 독도박물관을 비롯한 안용복기념관과 수도역사전시관 등 문화시설도 탐방하며 울릉도·독도 개척사 및 해양 생태 관련 등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청송군, 청소년페스티벌 “고·함” 성황

### 청소년 다양한 예술활동 참여 갈고닦은 실력 마음껏 발산...

2024 청송군 청소년페스티벌 ‘고·함’ 고마워! 함께 해줘서 행사가 성황리에 막 내렸다. 행사는 지난 1일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서 관내외 청소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소년페스티벌 고·함 고마워! 함께 해줘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고 자기 주도적인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송군과 청소년 참여기구가 함께 기획한 공연으로, 기획, 운영, 결과보고까지 청소년이 직접 참여했다.



1부 행사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행복한 봉사 동아리 청소년이 기획한 솜사탕, 슬러시, 청소년 활동퀴즈, 미니농구 등 15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2부 행사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

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으로 임강진 밴드, 비틀비틀즈, 레포렘 등 관내 청소년밴드 10팀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관내에서 체험할 수 없는 방탈출게임을 청소년수련관 3층 프로그램실을 이용, 진행했다. 행사마지막에는 DJ를 초대해 EDM파티를 열어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 페스티벌 ‘고·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이 여러분의 앞날에 값진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 울릉군 올해 첫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울릉군이 2024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 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울릉군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14억원 △나리 하수관로 보수공사 2억원 2개 사업에 총 16억원이 반영됐다. 울릉군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울릉군에 LPG배관망을 구축, 주민들의 열악한 에너지 환경을 개선한다. 지형적 요인과 열악한 재배여건으로 추가 사업비 소요가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예산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윤환 기자

## 청도군, 치매극복! 한마음걷기 계몽운동

### 치매보듬마을과 함께 치매 愛 희망 을 담다

청도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일 매전면 동산리 경로당 어르신 및 마을주민 30여명과 함께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 계몽운동을 했다. 걷기 계몽운동은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통해 치매 극복 의지를 다지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걷기에 앞서, 매전문화센터 2층 회의실에서는 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예방에 좋은 체조, 치매예방 3·3·3수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홍보부스를 통해 치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예방·관리의 상세한 1:1 맞춤 안내로 평소 치매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됐다. 청도군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정성이 깃든 작품들을 함께 전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걷기 캠페운동은 매전문화센터에서 처진소나무까지 아름다운 동창천을 바라보며 인도를 따라 걷는 왕복 코스로 진행됐다.



매전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참여하여 안전을 책임지는 봉사 활동은 물론 치매보듬마을의 친화적 공동체 품격을 한층 높였다. 걷기에 참여한 완주자는 “계몽운동으로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았다”며 체계적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부탁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 캠페인 실천으로 치매를 이해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출발점이 됐길 바라며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울진군, 산불 신고포상금 최대 300만원 지급

### 산불 발생 빠른 산불 진화 가해자 검거 주민신고 협조

울진군은 산불 가해자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2년 5월 근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2023년 2월 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산불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산불 신고제도 활성화 및 산불 가해자 검거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2022년 5월 28일 12시 6분경 근남면 행곡리산 27-6 일원 도로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비화, 산불이 났다. 행곡리와 수산리 일대 228.76ha에 산림피해를 끼친 대형산불이다. 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2023

년 2월 1일 22시 32분께 기성면 정명리 산151 일대 산림에서 방화범의 소행으로 발생한 산불로 1.3ha의 피해를 줬다. 피의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군은 2022년 3월 북면 두천리 일대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산불을 겪은 뒤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불 특별방재단책 수립, 영농부산물과 쇠 확대, 산불감시체계 고도화(산불 ICT, 드론 스테이션 운영) 등 다방면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강화, 신고포상금 또한 적극적으로 지급한다. 순병복 울진군수는 “산불이 연중·대형화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산불 진화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정수 기자

###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 영천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영천시 문화가 있는 날 3회차 행사인 '재즈, 금호 와인에 빠지다'가 지난 2일 영천시 금호읍어울림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24년 경북도의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문화재단과 영천시 문화가 있는 날 협력기관인 도시사람콘텐츠클럽(대표 강구민)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금호어울림센터 2층 공연장에서는 김정식 재즈 앙상블과 정재영 집시 트리오의 재즈 공연이 펼쳐졌다. 두 팀은 재즈곡부터 동요, 대중가요, 팝까지 다채로운 재즈연주와 더불어 근대 영천 출신의 음악가 '왕평'의 '황성옛터', '대한팔경'을 재즈풍으로 리메이크한 연주를 선보여 시민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또한 공연에 앞서 금호어울림센터의 어울림카페와 와이너리카페에서는 레이저아트전시와 더불어 와인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영천와인 시음회, 청굴에이드 만들기 등 영천와인을 매개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도 마련돼 행사를 찾은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가득 선사했다.

한편, 영천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연말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으로, 다음 4회차 행사는 8월 말 화북면 오리장리 문화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은하 기자



#### 고령군, 농촌크리에이티브지원

고령군과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은 '농촌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순조롭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과 여행사의 협업으로 선정된 농촌크리에이티브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작,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6월 초부터 진행된 농촌크리에이티브사업은 5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가얏고마을, 예마을, 개실마을, 신리마을, 안림달기마을)의 프로그램과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령통통 어와달달 벌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6회의 투어와 팸투어를 통해 고령군 관광명소를 널리 알렸다.

농촌관광협력단에서는 8월 여름휴가 기간을 목표로 주말 프로그램을 넘어서 평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9월 세계유산축전을 맞아 1박 2일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명백 기자

# 한수원, “낙동강수계 녹조 제거”수공 총력대응

## 녹조제거선박 및 물순환장치 풀가동 안전한 물이용 차질 없도록 총력대응

한수원자원공사(K-water) 낙동강유역본부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상류 댐(안동댐과 영주댐) 및 본류 다기농보, 주유취수장 대상으로 녹조제거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폭우가 지나가고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 말(7.29 채수) 기준 안동댐 예안교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11만2900cells/mL(조류경보제 “경계” 수준)을 기록했다.

영주댐 앞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746cells/mL(조류경보제 “관심”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장마 이후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댐 예안교 지역에 시간당 200m3의 물속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대용량 녹조제거선을 상시 가동 중이며, 녹조확산 방지를 위한 조류차단막 2개소 설치, 수면포기기 30기를 동시에 가동한다.

영주댐에는 총 3대의 녹조 직접제거설비(대용량 녹조제거선, 육상형 처리시설, 유압식 녹조제거선)를 상시 가동하고, 물순환설비 및 수면포기기 78기 운영, 녹조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 정체수역 영양물질 저감을 위한 수중식물(부레옥잠) 식재 등 녹조저감에 총력을 기울인다.

보현산댐에는 녹조제거선과 물순환설비 20기를 운영하고, 정체수역과 댐 상류 인공습지에 수질정화식물(부레옥잠, 물상추)을 식재해 녹조를

#### 의성군의회, 지방의회 청렴워크숍 개최

의성군의회는 지난 1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의성군·청송군 의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을 개최하여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관련 강사를 초빙해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과 제도 △갑질 없는 윤리적 조직문화 △갑질 행위의 기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훈식 의장은 “이번 청렴 교육은 지방의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성군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성 기자

#### 2024 성주썸머워터바캉스 인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7일 개최한 ‘2024 성주썸머워터바캉스’가 재미와 안전 모두 잡은 물놀이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주별고을체육공원 제2주차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참별이 슬라이드(대형1, 중형3)와 대형풀장, 유아용 에어바운스 등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물놀이 기구들을 준비했다.

또 슬라이드마다 배치된 안전요원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근무하고 있어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 동반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다.

매인 광장에서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대포와 시원한 물줄기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주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 올린 사연 소개와 신청받은 노래가 시원한 물놀이장에 울려 퍼져 축제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물놀이 시작 전 사회자 진행 하에 진행되는 물총싸움을 통해 어린이와 부모 모두 하나가 되어 즐기고, 랜덤 댄스 플레이를 통해 반응이 좋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등 물놀이 외에도 즐길 거리가 다양하여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물놀이장으로 호평이 가득하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넓은 그늘막 쉼터와 알찬 메뉴와 착한 가격으로 구성된 푸드트럭,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도 잘 준비되어 물놀이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물놀이장을 찾은 관광객은 “재미와 안전 모두 갖춘 물놀이장으로 썸머 워터 바캉스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무료로 이런 다양한 물놀이 기구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서 여름 휴가 피서지로 딱이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도재훈 기자

저감한다. 또한, 낙동강 보와 본류 주요 취수장 등 나머지 지점에도 총 11대의 녹조제거선과 총 25기의 물순환설비 및 수면포기기 등을 운영해 본격적인 제거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밝혔다.

낙동강유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녹조제거작업 기간은 7월 말부터 통상 녹조발생이 잦아드는 10

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녹조 발생 현황을 고려해서 해당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낙동강수계 우심지역 녹조제거작업은 과거에 시행하지 않았던 다수의 제거설비를 통합운영하는 방식으로 적시 적소에 해당 설비를 배치해서 녹조 발생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계획했

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양의 녹조제거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동강유역본부 조영식 본부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녹조 발생 시즌이 도래한바, 올 10월경까지 대대적인 녹조 제거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물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 영천시, 폭염대비 혁신지원 플랫폼 공사 현장점검

#### 폭염 속 건설 현장, 현장근로자 안전점검

영천시는 지난 1일 도남공업지구내 혁신지원 플랫폼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대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에 따른 현장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최기문 영천시장 및 시 관계자들은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근로자들이 충분한 음수 섭취, 적절한 휴식 시간 확보 등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강조하며, 모든 현장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도남공업지구 혁신지원 플랫폼 공사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4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총 105억원을 확보해 3D프린터 및 5축가공기, 재생소재 압출 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해 전기차 부품, 친환경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기술력 확보와 지역기업의 고부가가치 재생소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최기문 영천시장은 현장근로자와 일일이



소통하며 격려하고 특히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

## 의성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의성군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하며 동부권역 청년주거공간 조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이 조성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에 유입되는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청년친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6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의성군을 포함한 3개 시군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의성군은 원도심인 의성읍 내에 사업 대상지를 마련해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청년마을 ‘나만의성’ 활동 지역과의 높은 연계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의성읍 일원에 총 사업비 32억 투입, 3층 규모의 청년 전용 주거 시설을 조성하여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으로 지역에 유입된 청년의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2022년부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성군 청년마을 「나만의성」(대표 권기호, 권예원)은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도시청년에게는 로컬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지역민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지방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활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0년 안계면에 조성한



청년주거지에 이어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복지 실현을 통해 청년친화도시에 한 걸음 나아가겠으며 청년이 행복하는 의성군이 되기 위해 분야별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 ‘제1회 영주 서천 강변가요제’ 성료...

#### 예비가수 12명의 열띤 경연...

#### ‘소금꽃’ 부른 지재현 씨 대상

“2024 제1회 영주 서천 강변가요제가 지난 2일 영주 시원(ON) 축제장 주무대(문정동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영주 서천 강변가요제’는 전국 각지의 유능한 신인가수를 발굴하고, 영주 대중음악 예술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영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영주지회(이하 ‘영주연예협회’)가 주관한 이번 가요제는 ‘2024 영주 시원(ON) 축제’와 연계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지난날 6일 160여 명이 참가한 예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뚫고 올라온 본선 참가자 12명의 불꽃튀는 경연과 최우연, 최지현, 송수영, 임미정 등 초대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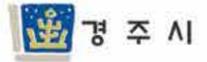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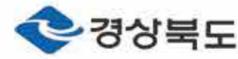
심사 결과 대상의 영예는 높은 수준의 가창력으로

로 ‘소금꽃’을 부른 지재현(영원) 씨가 차지하며,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의 가수 인증서와 상금 3백만 원을 받았다.

또한 △금상은 ‘회룡포’를 부른 김도희(진주) △은상은 ‘비익조’를 부른 문영옥(경주) △동상은 ‘망부석’을 부른 김지혜(서울) △장려상은 ‘안돼요 안돼’를 부른 홍승식(영주) 씨가 각각 수상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출연자들의 화려한 무대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가요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가요제가 지역과 전국 각지의 우수한 음악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영주 대중음악 예술문화의 수준을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 2025 APEC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지금 경주는 APEC 중  
우리가 함께 한 경주  
세계로 향하는 경주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 GYEONGJU

**APEC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의 기구입니다.

21개국 정상 및 대표단, 기업인 등 6,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